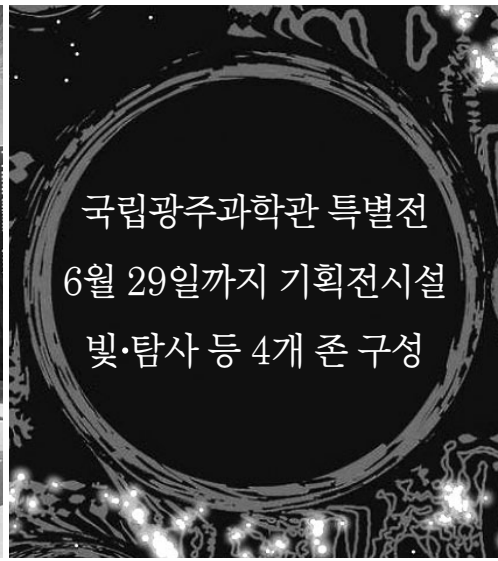




우주과학특별전 '지구 너머의 세계'가 오는 6월 29일까지 국립광주과학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관람객들이 우주 스케치월, 태양계 만들기 등 다양한 전시물을 체험하고 있다.

〈국립광주과학관 제공〉

끝없는 호기심 '지구 너머의 세계'로

끝없이 넓고 인간의 눈에 보이는 건 극히 일부에 불과한 미지의 세계, 우주.

국립광주과학관이 준비한 우주과학특별전 '지구 너머의 세계'가 오는 6월 29일까지 열린다. 고대 천문학의 기록부터 현대 과학으로 증명된 우주의 비밀까지, 이번 전시는 우주에 대한 지식과 역사를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8일 시작된 이 전시는 국립과천과학관의 2024년 브랜드기획전 순회전시로, 총 네 개의 존(Zone)으로 나누어져 '우주 덕후'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다양한 경험과 발견의 순간을 제공한다.

전시장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펼쳐진 제1존. 전자기파인 빛의 스펙트럼을 주제로 한 전시물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가장 먼저 프리즘을 통해 가시광선뿐 아니라 적외선, 자외선 같은 보이지 않는 빛까지 관찰할 수 있었다.

여기서 본 연속 스펙트럼은 무지갯빛으로 연속적인 띠를 이루고 우주의 신비한 빛을 그대로 담아냈다. 벽면에는 허블, 제임스웹, 페르미 감마선 망원경 등 우주 관찰에 사용된 여러 망원경의 역할이 설명돼 있었고, 플랑크 우주망원경이 포착한 빅뱅 흔적인 '우주배경복사' 이미지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제2존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진짜 우주의 신비가 펼쳐졌다. 블랙홀,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와 같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제로 한 전시가 마련됐다.

터치스크린 위 배경 사진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중력에 의해 빛이 휘어져 왜곡되는 중력렌즈 체험 전시물은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관심을 끌었다. 화면을 누르고 있는 시간에 따라 왜곡의 강도가 달라지는데, 은하들이 별을 형성하는 과정을 재현해

냈다. 천장에 매달린 소행성 모형과 철질 운석을 직접 만지는 체험을 통해 우주를 더욱 생생하게 느끼도록 구성했다.

제3존에 들어서는 순간, 인공위성, 운석, 우주선을 그리는 '우주 스케치월'과 블록을 활용한 우주선 조립, 태양계 만들기 등 흥미로운 체험형 콘텐츠가 가득했다. 교육센터의 간단한 이론 수업 후, 행성 무드등을 만드는 경험은 전시회 관람의 재미를 더했다. 자칫 복잡해 보일 수 있는 과학적 개념들이 손쉬운 놀이와 체험으로 다가와 우주를 창조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마지막 제4존에서는 인류의 우주 탐사 여정이 펼쳐졌다. '보이저호의 축소 모형', '골든레코드와 지구의 소리', 그리고 60억km 너머에서 촬영된 지구 사진 '창백한 푸른 점(Pale Blue Dot)'은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스케일을 자랑했다.

특히, 보이저호에 실린 메시지가 외계 지성체를 향한 인류의 첫 공식 인사라는 사실은 우주 탐사에 대한 인간의 도전 정신을 실감케 했다. 벨기에 천문학자 르메트르의 빅뱅 이론부터 최근 암흑에너지 연구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는 도서는 인류의 학문적 탐구의 깊이를 새삼 느끼게 했다.

국립광주과학관에 설치된 '지구 너머의 세계'는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끝없는 질문을 던지는 탐구의 장이었다.

문기현 국립광주과학관 전시기획실 연구원은 "이번 전시는 우주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특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광주 시민들에게 우주라는 끝없는 탐구의 장을 제공하고, 새로운 과학적 호기심의 세계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쏟아 IT 정보

카카오페이 마이너데이터 2천만명

카카오페이는 지난 14일 자산정보 서비스 마이너데이터 가입자가 20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회사는 국내 만 19~64세 가운데 5명 중 3명이 카카오페이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마이너데이터는 단순히 흩어진 자산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것을 넘어 맞춤형 추천을 통해 실질적 혜택을 제공 중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페이는 또 마이너데이터를 활용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지난 2년간 약 2만명의 사용자가 총 1조1340억원 규모의 대출 금리를 평균 1.52%포인트 낮췄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SKT, 기내 와이파이 자동 로밍

SK텔레콤이 SK텔레콤과 개발한 'T 기내 와이파이 자동 로밍' 서비스를 대한항공 일부 항공편에서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T 기내 와이파이 자동 로밍은 이용자가 탑승 전 서비스에 가입하면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자동으로 기내 와이파이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로, SKT는 SK텔레콤과 세계 최초로 구현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기내 와이파이에는 이용자가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와이파이 사용 가능 항공편을 확인하고 결제하거나 탑승 후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탑승 후 항공사 사이트 접속과 회원가입 혹은 사용자 인증 등의 절차도 필요하다. /연합뉴스

KT, 야외서 네트워크 품질 체험

KT가 '당신이 가는 모든 곳에 KT'라는 슬로건 아래 야외에서 안정된 네트워크 품질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지난 11일 밝혔다. KT는 올해 서비스 품질 향상의 초점을 '아웃도어'에 맞추고 고객이 야외에서 SNS 인증, 실시간 위치 공유, 고화질 사진·영상 전송 등 다양한 활동을 원활하게 즐길 수 있도록 네트워크 품질을 강화했다.

첫 번째 프로모션은 '전국 방방곡곡 미션 인증 챌린지'로, 지정된 야외 미션 지역에 방문해 인증 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두 번째 이벤트는 올초 초창 캠프 '올캠'은 다음 달 25일부터 10팀을 초청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연합뉴스

넥슨 '핑크빈의 전국 캠퍼스투어'

넥슨은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서비스 22주년을 기념해 전국 각지의 대학 캠퍼스와 변화가 예대 대규모 오프라인 이벤트 '핑크빈의 전국 캠퍼스 투어'를 진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행사는 이달 17일 세종대를 시작으로 조선대를 비롯해 동국대, 서울대, 포항공대, 연세대 국제캠퍼스, 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카이스트, 부산 광안리 밀락더마켓, 아주대, 강원대,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차례로 열린다. /연합뉴스

'V 컬러링'에서 독립운동가 알린다

통신 3사, 광복 80주년 기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함께 보이는 컬러링 'V 컬러링'에서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난 11일 밝혔다. <사진>

V 컬러링은 나에게 전화를 상대방에게 내가 설정한 영상을 보여주는 컬러링 서비스로, 통신 3사가 공동 운영하는 서비스다.

통신 3사는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4월과 6월 V 컬러링 유튜브 채널에 한 편씩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임시정부수립일에 맞춰 공개된 첫 번째 영상은 독립운동가 김규식 선생의 일대기를 다루며, 배우 김남길에 내레이션에 참여했다. V 컬러링 고객이 해당 영상을 보이는 컬러링으로 설정하면, 월정액 이용료(3300원)의 일부가 대한민국의 마지막 임시정부 '경교장'에 기부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정이다. 경교장은 2013년 서울역사박물관 관리아 래 시민에게 방면 이후 시설이 노후화 해보안필 요한 상황이다.

통신 3사는 4월과 6월에 진행되는 V 컬러링 기부 이벤트에 모두 참여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5명을 선발해, 오는 8월 서경덕 교수와 함께 떠나는 독립운동 역사 탐방단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통신 3사는 작년에 서경덕 교수와 함께 독도와 울릉도를 직접 탐방하는 '독도 유랑단'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 기기 사용하면 노년기 인지 저하 위험 ↓

스마트폰·컴퓨터 같은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면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디지털 치매'(digital dementia) 가설과 달리 기술 사용이 오히려 노년기 인지 저하 위험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오스틴 텍사스대 재러드 벤지 교수와 베일러대 마이클 스킵킨 교수팀은 15일 과학 저널 네이처 인간 행동(Nature Human Behaviour)에서 성인 41만여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57개 연구를 메타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결과는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인지 능력을 약화한다는 '디지털 치매' 가설과 모순된다며 오히려 기술 노출이 기술적 예비력을 형성,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기술은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 기술과 함께 성장한 첫 세대가 치매 증상이 흔히 나타나는 연령에 이르고 있다. 하지

만 일상적인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들 연구는 성인 41만1430명(평균 연령 68.7세)이 참여한 관찰 또는 코호트 연구로, 50세 이상의 일반적인 디지털 기술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인지 또는 치매 진단 결과를 통해 인지 능력 변화를 관찰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은 컴퓨터,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사용하는 것 또는 이들 기기를 조합해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분석 결과 디지털 기기 사용에 따른 인지 장애 위험 오즈비(Odds Ratio)가 0.42(95% 신뢰구간)로 나타났다. 디지털 기술을 많이 사용하는 그룹의 인지 장애 위험이 디지털 기기 사용이 적은 그룹보다 58% 낮다는 의미다. 또 디지털 기기 사용과 인지 능력 간 관계를 평균 6.2년간 추적한 중 단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인지 능력 저하 위험을 평균 26%(HR=0.74)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경찰청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갇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